



최희섭 하산... 연봉갈등 풀리나

오늘 포항행... 조만간 구단과 재협상 이뤄질 듯

‘빅쇼이’ 최희섭(사진)이 하산하면서 연봉협상 논란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연봉협상 과정에 불만을 품고 지리산행에 나섰던 최희섭이 22일 ‘야속의 땅’ 포항으로 간다. 최희섭은 지난 14일 1차 연봉협상과정에서 구단측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15일 출발예정이었던 포항캠프의 불참을 결정했다. 그동안 지리산에 머물렀던 최희섭은 21일 서울 도봉산을 찾아 생각을 정리한 끝에 황

병일 수석코치와 나지안·안치홍 등이 머물고 있는 포항을 찾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포항행이 정식적인 훈련참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희섭은 “포항캠프는 원래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포항멤버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포항훈련 당시 도움을 줬던 지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포항을 찾는다”면서도 “훈련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직 연봉협상 논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은퇴까지 불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포항행을 앞두고 최희섭은 “2차 협상에서도 우승팀 주역다운 대우와 자존심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산행을 선택했을 때와 큰 심경의 변화는 없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만큼 양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희섭은 2~3일 정도 포항에 머물며 휴식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오는 24일부터는 포항캠프팀의 연봉협상을 위해 KIA의 협상담당자가 포항에 파견되기 때문에 양측이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난관은 있다. 이번 사태를 보는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남은 것도 사실이다. 최희섭은 “지난해 연봉까지 백지위임하며 자존심을 꺾은 채 올 시즌 최선을 다했고, 팀은 12년만의 우승이라는 큰 목표까지 이루어낸 만큼 구단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또한 메이저리그 출신으로서의 대우를 약속받고 한국무대로 돌아온 ‘빅리거’ 최희섭에게 선수보다 구단이 우선시 되는 국내 야구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존재한다. 반면 구단측은 “구단 나름의 연봉고과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는 만큼 최희섭의 입장을 다 이해해줄 수는 없다”고 밝혀 양측의 대화가 쉽지 않은 양을 전방이다. 최희섭에게는 명예 회복을 KIA에게는 우승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야속의 땅’ 포항이 2010년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에이스 대점

연봉 22% 인상... 2억2천만원 재계약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사진)이 2억 고지를 밟았다. KIA 윤석민이 21일 1억8천만원에서 4천만원(22.2%) 인상된 2억2천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지난 2008년 1억1천만원을 기록하며 역대연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윤석민은 데뷔 6년만에 연봉 2억원을 돌파했다. 윤석민은 올 시즌 27경기에 등판해 3.46의 방어율로 9승4패7세이브를 기록했다. 부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시즌 초반 한기주의 부진으로 공백이 생긴 불펜에서 마무리 역할을 자처하는 등 선발

과 불펜을 오가며 12년만의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또 올해 초 열린 WBC 베네수엘라의 준결승전 선발로 나서 한국의 결승 진출을 이끄는 등 ‘국민에이스’로 명성을 얻었다. 윤석민은 재계약을 마치고 “올 시즌 WBC 이후 잦은 부상으로 제 역할을 못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 시즌에는 명예회복을 노리고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포수 차일목도 6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25%) 인상된 7천5백만원에 연봉협상을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날 계약으로 KIA는 2010 연봉 재계약 대상자 56명 중 46명과 재계약마무리하며 82.1%의 재계약율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 LPGA에서 활약중인 골프스타 위성미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쇼핑 행사에서 장흥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물품을 증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흥의 딸’ 위성미 사랑나눔

불우이웃돕기 1억 기탁·소년소녀가장에 선물

올 시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한 재미동포 위성미(20·나이크골프·미국명 미셸 위)가 21일 할아버지의 고향인 장흥군에 1억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할아버지인 고(故)위상규 박사의 기일을 맞아 지난 14일 귀국한 위성미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7층 이동매

장에서 장흥군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사랑의 쇼핑’행사를 했다. 또 위성미는 팬사인회와 함께 소년소녀가장과 조순가정 등 어려운 계층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장흥군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자라나는 장흥군의 청소년을 위해 값지게 사용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위성미는 지난해에도 5천만원의 물품을 지원해 소년소녀 가장과 조순가정, 결식아동 등 657명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메시지와 함께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한국 최초의 항공학 박사이자 전 서울대 명예교수인 할아버지 고 위상규 박사의 기일을 맞아 귀국한 위성미는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하고 후식을 취한 뒤 이날 말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광주 아마 야구인들 한자리에

내일 유스퀘어 야구인의 밤 KIA 김조호 단장 공로패 받아

광주지역 아마 야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광주시야구협회(회장 윤병이)가 23일 오후 7시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에서 ‘2009 광주시야구협회 야구인의 밤’을 개최한다. 광주지역 야구 발전과 야구인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광주일고 허세환 감독과 대성초 신경호 감독, 화정초 유종열 감독은 우수감독상을 받는다. <우수감독상=허세환(광주일고)·신경호(대성초)·유종열(화정초) > <우수선수상=심동섭(광주일고)·김정빈(무등

중)·김석환(서석초) > <우수타격상(협회장상)=임영섭(광주일고)·김정운(진흥중)·박준용(수창초) > <우수타격상(동우회장상)=김요셉(광주일고)·김진휘(충장중)·한준수(서석초) > <심판상=박동표(광주시야구협회 심판위원) > <장학생수상자=박건호(동성고)·최승훈(무등중)·성현우(화정초)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재확인했다. 특히 KBO는 앞서 히어로즈와 LG가 합의했다는 히어로즈 외야수 이택근의 트레이드는 가입금을 KBO에 완납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트레이드 승인이 헤를 넘길 가능성도 생겼다. 이삼일 KBO 사무총장은 “트레이드 승인은 총재의 권한이다. 또 히어로즈가 이택근 뿐 아니라 다른 선수도 계속 트레이드할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프로야구 인기를 유지하는데 들어맞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 두산 사장과 서영종 KIA 사장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히어로즈 미납 가입금 KBO에 내라”

KBO “LG·두산에 지급 인정 못해”

야구계를 어지럽게 한 히어로즈의 가입금 납부와 이택근(29) 트레이드는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미납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후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KBO는 21일 오전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8개 구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간담회를 열어 히어로즈 가입금 등 현안을 논의한 결과 ‘히어로즈가 가입금 중 30억원을 서울 연고지 입금금으로 기존 서울 구단인 LG와 두산에 몇대로 나눠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KBO는 따라서 히어로즈가 이미 LG, 두산에 지급했다는 돈을 되돌려 받아 KBO 통장에 입금해야만 기존 구단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히어로즈의 구단 지위’를

봄슬레이도 동계올림픽 간다

사상 첫 4인승 출전권 획득

‘롤러링’ 봅슬레이 대표팀이 역대 처음으로 4인승 종목에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쾌거를 달성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레이크플래시드에서 치러진 2009-2010 아메리카컵 4인승 6차 대회 1, 2차 시

기 함께 1분51초81로 5위를 차지했고, 연이어 치러진 7차 대회에서도 연속 5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지난 2차 대회부터 4인승에서 6개 대회 연속 ‘톱10’을 달성하는 쾌조의 성적을 거두면서 이번 시즌 국가랭킹에서 15위(포인트 378점)를 차지해 국가랭킹 17위까지 주어지는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국 봅슬레이가 동계올림픽 무대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2006 토리노 대회까지 투지와 스킨레탄 선수로 변신을 거듭하며 3회 연속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강광배는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봅슬레이 종목으로 출전하게 돼 4회 연속 동계올림픽 출전의 기쁨을 맛봤다. 더불어 강광배는 세계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썰매종목(봅슬레이·투지·스켈레탄) 3종목에 모두 출전하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Jeju Yeong' (제주영행) featur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ext like '100% 만족가능', 'www.jejuyoung.com', and phone number '062-383-9042'.